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https://equalityact.kr> | 팩스 02-6008-1968 |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수신	각 단체 대표자 및 각계 인사
참조	집행 책임자 및 담당자
제목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인권과 존엄이 무너지는 한국사회,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대적 사명을 다하라” 참여 요청
제안자	권달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김도형(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래군(4·16재단 상임이사), 이종걸(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정혜실((사)안산공동체미디어 상임이사)
담당	지오(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010-7454-2280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010-9356-1611
발송일	2022년 4월 25일(월)

1. 민주주의 확립과 인권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와 귀 단체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4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모든 사람이 고르게 존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고 미류, 이종걸 두 명의 인권활동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한지 15일째입니다.
3.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국회는 여전히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한국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더욱 공고해진 차별과 불평등의 구조, 더욱 거세진 혐오선동 속에서 시민들의 존엄이 훼손되고 삶이 위협받고 있지만, 국회와 정치는 시대적 사명을 외면한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회의 시대적 사명임을 선언하고, 국회가 지금 즉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다시 세우도록 요구하는 비상시국회의를 긴급하게 제안드립니다.
5. 귀하 및 귀 단체에서 꼭 참여하여 힘을 모아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인권과 존엄이 무너지는 한국사회,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대적 사명을 다하라”

- 일정 : 오전 10시 비상시국회의 | 오전 11시 기자회견
- 요청 : 각계 대표자 및 각계 인사 비상시국회의 연명 참여, 기자회견 참석 요청

1)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 일시 및 장소 : 2022년 4월 28일(목)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
- 논의내용
 - |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경과 보고
 - | 제단체 인사 및 차별금지법 관련 발언
 - | 시국선언문 승인

2)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2년 4월 28일(목) 오전 11시, 국회도서관 강당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선언

- 연명 마감 : 2022년 4월 27일(수) 자정까지
- 연명 참여 : <https://bit.ly/equalityact0428>
- 이메일로 회신해주셔도 됩니다.
 - 비상시국선언 연명 참여 : 이름 / 단체 및 소속 / 직위 / 연락처
 - 비상시국회의 및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 참석 여부

※ 참고사항

- 각 단체 대표자 및 각계 인사 개인의 연명을 받습니다. 대표자가 없는 경우, 각 단위를 대표하는 활동가의 이름으로 참여해주시요.
- 연명은 인권시민사회 각계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정당의 연명은 받지 않습니다.
- 비상시국회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공동행동으로 상설기구구성의 의미는 아닙니다.

- ※ 담당 : 지오(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010-7454-2280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010-9356-1611

■ 첨부 | 비상시국회의 제안서 1부

끝.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권달주, 김도형, 김민문정, 박래군, 이종걸, 정혜실 (직인 생략)

■ 첨부 | 비상시국회의 제안서

인권과 존엄이 무너지는 한국사회,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대적 사명을 다하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회의에 함께해주십시오.

차별금지법 없는 15년, 한국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후퇴해왔습니다.

2007년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동안 차별금지법은 반인권세력에 의해 수차례 논의와 제정이 무산되길 반복했고, 국회에서는 단 한 번도 평등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부재는 그야말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존엄의 권리가 훼손되고 후퇴해온 궤적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향한 간절함이 모욕과 혐오로 얼룩지고, 거센 미투 운동의 흐름 이후에도 성평등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꿈꾸던 故 김용균 사망 이후에도 노동의 현장은 여전히 죽음의 현장으로 남아 있고, 파편화되는 일터는 ‘공정’의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갈라내고 있습니다. 故 변희수 하사와 죽음 이후에도 한국사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모욕과 폭력을 멈추게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더욱 확인해진 불평등은 장애인, 아동과 노인뿐만 아니라, 필수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는 인권과 존엄이 무너지는 한국사회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2022년 봄, 지금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합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확산되어온 차별과 혐오선동의 정치, 이를 방관하는 정치가 인간의 존엄과 한 사회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매 순간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소수자를 향한 비방은 점차 확산되어 사회전반에 혐오의 정서를 퍼뜨렸고, 이제 여성과 장애인, 성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 지방대생과 청소년 등 가릴 것 없이 혐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강화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성평등 가치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폐지’가 대선 공약으로 등장하고, 장애인의 권리투쟁이 비장애인 시민의 권리를 빼앗는 것으로 선동되고,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의 후퇴가 기업경영의 자율과 효율이라는 미명하에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정치뿐만 아니라 이에 편승하거나 방치하는 정치 모두 인권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정치권이 평등의 가치를 외면하거나 타협하는 동안, 대다수의 시민들은 차별과 혐오가 특정한 소수자 집단이 아닌 모든 사회구성원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차별과 혐오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시대 인식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인간 존엄의 선언과 민주주의의 실천을 다시금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조속한 제정은 국회의 책무이자, 시대적 사명입니다.

촛불 이후, 비가시화 된 수 많은 시민들이 권리를 요구하며 모여 말하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는 어김없이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누구도 평등의 권리로부터 배제되지 않을 때 새로운 민주주의가 시작될 수 있음을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과 인권시민사회의 15년이 넘는 노력과 투쟁, 국제인권기구들의 반복되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평등’이 표류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10만 명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핑계로 인권을 나중으로 미루고, 민주주의를 침식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 모든 사람이 고르게 존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또 다시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고, 미류와 이종걸 두 명의 인권활동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평등의 원칙,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회는 즉각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시민들을 차별과 혐오에 방치해두는 정치를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 끝내야 합니다. 차별과 혐오가 일상이 되어 시민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할 국가의 책임을 묻고, 헌법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권리를 실현할 책무를 외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요구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굳건히 세우는 일에 앞장 서 목소리를 내 주십시오. 국회가 시대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나서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우리에게 가장 간절한 그 세상을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루어냅시다.

귀하 및 귀 단체에서 비상시국회의에 꼭 참여하여 힘을 모아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